

##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 커먼즈에서 커머닝으로\*

윤여일\*\*

이 논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반대운동의 좌절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마을상을 형성해가고 있는 강정마을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강정향토지江汀郷土誌』, 『강정이야기』라는 세 가지 자료를 통해 세 가지 마을상을 비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주로 2012년에 발표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마을을 개발대상으로 간주하여, 마을의 현재 결여 상태를 부각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반면 1996년 강정마을회가 발간한 『강정향토지』는 마을의 긴 역사와 마을의 풍요로운 땅, 하천, 바다의 환경을 긍지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십년이 지난 지금, 강정마을은 『강정향토지』가 묘사한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마을신문인 『강정이야기』다. 『강정이야기』는 강정마을의 변화하는 현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읽어보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가운데서 강정마을에서는 새로운 공간과 활동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마을은 소중한 자연적 커먼즈인 구럼비 바위를 잃었다. 자연과의 관계가 절연되면 인간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마을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공간과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 커먼즈를 상실한 이후, 마을의 공적 영역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커머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강정마을, 마을상, 구럼비, 커먼즈, 커머닝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381).

\*\* 제주대학교SSK연구단 전임연구원(ekswnrjfl@hanmail.net).

## 1. 강정마을을 다시 주목하며

### 1) 강정, 싸우고 패배한 마을

강정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을이다. 알려진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마을의 주민들 대부분에게는 바란 적 없는 유명세였을 것이다. 올레길이 지나가는 마을이지만 관광지가 되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강정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거기에 맞선 반대운동을 통해서였다. 강정은 같은 제주의 마을인 가시리보다 차라리 밀양에 더 가까운 이름이 되었다. 투쟁하는 마을로 알려졌다.

강정은 여러 문헌을 통해 알려진 마을이다. 그런데 강정마을에 관한 문헌들은 2011년과 2012년에 집중된다. 2012년 3월 구럼비 발파를 전후로 반대운동이 고조되던 시기다. 논문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대한민국만의 제주해군기지가 가능한가?」(고권일), 「제주 해군기지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한국의 미래」(정옥식), 「강정마을에 드리운 무기의 그늘: 제주 해군기지 광풍의 현장」(윤용택), 「제주 미 해군기지 건설은 제2의 4·3 부를 시한폭탄」(김국상, 이정원), 「제주해군기지와 섬 연대」(홍기룡)가 발표되어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오히려 평화에 반한다고 이의 제기하며 추진 목적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김아현),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조영배),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동학: 자원동원이론 시각」(양길현),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이경원)는 주민의 거센 반대의를 거스르고 편법을 동원해 강행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반대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2012년에는 「고립에서 연대로! 제주 강정 해

군기지 반대 투쟁을 확장하자!」(강정은), 「“중덕이가 백구를 물었다”: 개싸움이 보여주는 강정마을, 제2의 평택 되려나」(이상원), 「강정과 구름비를 그 대로 뒤라」(백창욱), 「고립에서 연대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확장하자!」(강정은), 「구름비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탈법·불법의 문’ 열어 제낀 강정해군기지 사업」(김낭규)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연대의 취지에서 작성되었고,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 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정영신), 「국가 안보냐 한반도 평화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핵안보 정상회의를 중심으로」(박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배윤기),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임정빈)는 동아시아/한반도의 안보논리와 평화체제의 문제, 국책사업과 로컬리티 정치의 문제로 논점의 확장을 시도했다.

책으로 시선을 옮기더라도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관련된 열 권의 단행본 가운데 김성규의 『구름비 그 바다에 부치는 글』을 제외하고 모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의 투쟁기에 출간되었다. 다만 책은 논문과 달리 『울지마 구름비 힘내요 강정』, 『구름비의 노래를 들어라』, 『너영 나영 구름비에서 놀자』, 『구름비 깨져 양불 나거든』, 『구름비를 사랑한 별이의 노래』처럼 구름비가 책제목으로 등장하며 논문과는 다른 문체와 성격임을 짐작케 한다. 구름비는 확실히 반대운동의 상징이었으며, 여러 가치와 기억이 배어든 이름이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결국 구름비가 있던 자리 위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다. 그리고 해군은 같은 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기지건설 반대에 나섰던 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34억 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강정마을은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에게 패배한 마을로, 투쟁이 끝난 마을로 기억되고 있다.

## 2) 마을과 커먼즈

2017년 4월, 대선유세차 제주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처벌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sup>1)</sup> 이에 앞서 2017년 2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구상권 철회를 공약했기에 19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강정마을은 구상권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정마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올해 12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완공을 위해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이며 반대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는 ‘제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2공항 및 신항만 조기 개항’을 공약했는데,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공군기지와 오름 절토 문제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제2공항 건설’이라는 또다른 국책사업에 맞닥뜨려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제2의 강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강정. 이것은 제2공항 건설예정인 신산리뿐 아니라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이 예정된 한림, 대정 등의 마을에서도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제주도에서 강정은 국책사업으로 위기에 내몰린 마을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점에서 강정마을의 문제는 한 마을의 사례를 넘어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구상권 철회는 그 해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다시 강정마을을 ‘마을’로서 주목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강정마을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목적이 타당하지, 행정 당국의 추진 절차가 정당한지를 따져 묻고 생태평화주의적 시

---

1) 「제주 찾은 문재인 “4·3과 강정의 눈물 닦겠다」, 『한겨레신문』 2017. 4. 18.

각에서 구럼비의 가치를 조명하거나 저항주체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이후의 시점에서 강정을 ‘마을’로서 다시금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강정마을을 ‘마을’로서 주목하겠다는 표현은 일견 당연한 말로 들리겠지만, 이 글에서는 커먼즈(communs)와 커머닝(common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반대운동 이후 강정의 마을 상황으로부터 지역 마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의식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마을은 지도를 펼쳐놓고 내려다보면 구획되어 있는 평면적 공간이며 행정의 관점에서는 말단 단위지만, 삶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여러 층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입체적 장(場)이다. 특히 지역의 농촌, 어촌, 산촌은 각자의 환경에서 땅, 산, 숲, 바다 등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장구한 역사적 내력이 있다. 실상 마을의 어원은 물을 뜻하는 물에서 비롯된 말이라고도 하며, 한자 촌(村)은 나무를 일정하게 심어 놓은 곳, 리(里)는 땅에 밭을 일궈놓은 곳을 뜻한다.<sup>2)</sup> 마을과 더불어 쓰이는 ‘동네’는 ‘동내(洞內)가 변한 말인데, 동(洞)은 같은 물을 마시는 곳을 뜻한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마을은 용천수가 있는 자리에 형성되었다. 용천수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 대수층(帶水層)을 따라 흐르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이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지표수가 거의 없는 제주도에서 용천수는 유일한 식수원으로 마을들은 용천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용천수의 수나 수량이 마을의 크기를 결정했다. 이처럼 마을은 자연에 의지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주거지를 뜻하며, 바로 커먼즈란 인간 사회가 생계와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이용해온 다양한 자연자원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협력적 제도 내지 관습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3)</sup> 그런데 강조할 것은 커먼즈는 자연자원만을 가리

2)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 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울림.

3) 커먼즈 개념에 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엘리노어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고유한 규칙·전통·가치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전통·가치들을 생활의 질서로 삼는 공동체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즉 “커먼즈는 ‘자원+일련의 사회적 규약+공동체’이다. 이 세 가지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커먼즈의 각도에서 마을을 바라보자면 마을, 즉 공동체(community)란 공동재(common)를 이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재 없이 공동체는 형성되기 어렵고, 공동재의 유지·관리를 통해 공동체, 즉 마을은 존속한다. 이후 『강정향토지』에서 살펴볼 테지만 강정 역시 다양한 커먼즈로 구성된 마을이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의 상징이었던, 하지만 파괴당했던 구럼비는 제주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마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커먼즈였다고 말할 수 있다.

### 3) 강정, 위기 그리고 가능성의 마을

구럼비 바위의 발파가 시작된 2012년 3월 7일 직후인 3월 11일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강정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과 해군은 구럼비 바위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바로 다음날 “제주 구럼비 바위 문화재 지정 가치에 대해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구럼비 바위

---

위한 제도의 진화», 윤희근·안도경 역, 랜담하우스코리아, 최현, 2016,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진인진·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진인진을 참조하시오. 최현은 커먼즈 가운데 비배제성과 감소성을 지닌 Common-Pool Resources를 공동자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만 오스트롬의 견해와 달리 비배제성과 감소성은 물리적 속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령 경합성이 없는 자원이 산업화에 따른 환경의 오염이나 인구의 증감에 따라 경합성을 띠듯이 공동자원 이해에서는 물리적 속성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데이비드 볼리어, 2015, 『공유인으로 사교하라』, 배수현 역, 갈무리, 40쪽.

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 우위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 전공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구럼비 해안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돼 있는 제주도 다른 해안과 비슷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sup>5)</sup>

구럼비 바위는 지질상 제주 일원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암바위라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는 지질학적 분석으로 가려낼 수 없다. 커먼즈는 자연물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커먼즈가 된다. 구럼비 바위가 다른 데도 있는 용암바위였을 뿐이라면, 그것은 반대운동의 상징이 될 수도, 여러 책의 이름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강정마을의 주민들에게 구럼비 바위는 대체불가능한 존재였다. 길이 1.2Km, 너비 250m에 이르는 거대한 너럭바위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다. 구럼비 바위는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동네마당으로서, 사랑방으로서, 놀이터로서, 쉼터로서, 성소로서, 그렇게 문화를 빚어낸 공간이었다. 그렇게 다기능을 가진 커먼즈였던 것이다.

더구나 구럼비의 상실은 여러 기능을 가진 독특한 너럭바위를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구럼비가 뭉개지고 그 위로 해군기지가 들어서며 주민들은 마을의 앞바다를 잃게 되었다. 제주의 어촌 마을에는 ‘우리 바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바당(=바다)은 단지 바다생물 채취로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권의 의미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니다. 앞 바다 또한 쉼터이자 쉼터, 놀이터이며, 의례의 장이자 기억의 공간이다. ‘우리’, 즉 마을은 앞 바다와 함께 형성되고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구럼비와 ‘우리 바당’을 잃는다면 마을의 일부 공간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할 뿐 아니라 마을 자체가 변형된다. 커먼즈를

5) 「‘구럼비’ 바위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것들」, 『아시아경제』 2012. 3. 13.

상실하면 커뮤니티가 무너진다. 그 심각한 피해는 해군기지 착공 이래 마을의 해체 현상과 주민 갈등의 고조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강정은 현재 위기에 처한 마을이다. 앞서 마을의 커먼즈를 자원, 사회적 규약,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이라고 밝혔는데, 구럼비(와 앞 바다)라는 자연과의 관계가 절연되자 인간 간의 관계(규약, 공동체)가 변질되고 있다. 커먼즈의 상실 이후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공공사업이나 사적 개발로 커먼즈가 파괴된 한국의 여러 마을이 거쳐 간 공통의 운명이다.

그런데, 강정마을은 커먼즈의 파괴와 반대운동의 패배, 뒤이은 마을의 형해화로 귀결되지 않았다. 지금도 강정마을에서는 여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가령 매주 화요일 ‘강정친구들’은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선전전을 한다. 그들은 “2016년 2월에 공사가 끝나고 해군기지가 개관했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강정마을에서는 어떤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가. 반대운동 이후 어떤 운동이 진행 중인가. 그리고 이 글의 주된 관심사에 비추어 묻는다면, 파괴 이후, 패배 이후의 그 활동과 운동은 우리에게 마을을 이해하는 어떤 시각과 시야를 제공하는가. 이 글은 구럼비라는 마을의 커먼즈이자 운동의 상징을 잃고, 군사기지 건설 반대라는 운동의 목표를 잃은 ‘이후’라는 시간대에서 오히려 커머닝으로써 새로운 마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정마을을 주목하고자 한다.

## 2. 「지역발전계획」, 개발대상으로서의 마을

이제부터 ‘마을상’이라는 이 글의 주제에 따라 세 가지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자료는 세 가지 다른 마을상을 보여준다.

먼저 검토할 자료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다. 이 자료는 2012년 3월, 즉 구름비 바위가 발파되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시점에 발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주로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했으며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열 곳의 관계부처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총 74쪽에 이르는 「지역발전계획」은 I. 계획의 개요, II. 일반 현황, III. 발전 전략, IV. 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V.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방안 순으로 짜여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I. 계획의 개요의 1. 수립 배경 및 근거는 “대한민국 남방 해역에 대한 영토주권 확보를 위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도모”, “민·군복합항을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동반발전 모델 제시”라고 밝히고 있다(「지역발전계획」, 3). 이를 보충하는 것이 II. 일반 현황의 3. 여건변화인데, ‘대외적 여건변화’로서는 “한중일 동북아 지역과 연계한 관광요충지로 크루즈를 통한 해외 관광객 급증 예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아시아의 거점 크루즈항으로 기대”가, ‘대내적 여건변화’로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기반시설, 관광, 주거환경 등의 기능이 확충하여 지역발전 기회 증대”, “혁신도시와 상호 연계된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고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다(「지역발전계획」, 15). 즉 크루즈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해 관광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여기에 걸맞는 기반시설, 주거환경 기능을 확충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발전계획이 총 다섯 가지로 그 내용이 52쪽에 이르러 「지역발전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섯 가지 전략이란 ‘전략1. 크루즈를 통한 관광 허브 조성’, ‘전략2. 농수산물 특화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전략3.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 ‘전략4. 화합과 공존의 민·군 커뮤니티 조성’, ‘전

략5.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이다. 이 글의 관심에 따라 해당 전략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떠한 마을상을 전제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 하나하나 살펴보자.

### 1) 논점 1. 삶의 터전과 관광지

순서대로 '전략1.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 조성'부터 들여다보자. 추진과제는 다음처럼 설정되어 있다(「지역발전계획」, 25).

#### 1. 크루즈 해양관광 연계 인프라 구축

- 크루즈 배후지를 활용한 크루즈 터미널 조성 및 강정항을 대표적인 해양관광의 테마항으로 육성
- 크루즈 관광객 테마 쇼핑거리 조성 및 강정 용천수를 관광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

#### 2. 해양·녹색생태 테마공원 육성

- 해양생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범섬 해양공원, 서건도 해양레포츠 공원, 평화생태 공원 조성
- 해녀 및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문화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전략1은 크루즈항 건설과 이를 통해 대량의 관광객이 유입된다는 전제 위에서 마을과 연안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마을 주민과 환경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부를 것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령 '범섬 해양공원' 사업의 경우 범섬은 국내에 열 곳뿐인 천연

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 지정 해양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그런데 「지역발전 계획」은 범섬에 해양수중생태관, 수중전망대, 스쿠버 시설 등을 계획하며 사업내용을 “범섬 주변지역을 해양생태계 관찰·교육·체험·관광이 가능한 해양공원으로 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지역발전계획」, 33). 그 아래로 조성예시에는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잠수정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무분별한 인간의 출입은 연산호를 비롯해 수많은 수중생물에게 치명적 손상을 입힐 것이다. 이미 인간의 탈 것 등에 치여 지느러미가 파손된 돌고래들이 늘고 있다.

바다가 해양녹색생태 테마공원이라면 땅에서는 용천수공원이다. ‘강정 용천수공원 조성 사업’은 “강정지역 20여개의 용천수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수·여가공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용천수공원 조성”, “용천수 음악분수 및 수중조명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용천수 물놀이 시설(워터파크) 조성” 등을 사업내용으로 잡아놓고 있다(「지역발전계획」, 31). 앞서 강조했다시피 용천수는 제주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커먼즈로서 오염과 남용에서 지켜져 왔다. 그런 기초적 사실에 비춰본다면 용천수를 관광자원화하여 음악분수, 수중조명시설,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반마을적이다.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점은 마을을 관광지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마을은 관광객의 눈을 자극하는 관광상품이기에 앞서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그런데 가령 ‘강정마을 내 주택 개·보수 및 돌담길 정비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크루즈 방문객 및 올레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광미항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가 상정되어 있다(「지역발전계획」, 48). 이어지는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사업’도 두 가지 필요성이 거론된다. “강정마을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여 실개천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

“지역주민의 친수·여가 공간 확보 및 관광객의 증가 유발 및 만족도 향상”이다(「지역발전계획」, 49). 그런데 이미 풍부한 수량의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을 새롭게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관광객의 시선에 비쳐진 마을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략1은 마을 근처에 일부 관광시설을 마련해 경제적 뒷받침을 한다는 구상을 넘어 마을 자체를 관광지로 바꿔놓고자 마을 사람들의 생활공간에 선불리 손을 대려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어서 ‘전략2. 농수산물 특화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다. 이 중 많은 예산이 투입될 굵직한 사업은 양식단지, 바다목장, 수증 가두리양식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다. 「지역발전계획」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어장면적 축소로 조업수입이 감소”했음을 인정하며,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어장 개발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들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정말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자세히 묻지 않겠다. 대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체험관광’이라는 표현이다.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해양 체험·관광형”이라고 수식되며 그 필요성은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등 연안어장의 생태계 보호 및 어로, 체험관광 등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화 도모”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생태계 보호, 체험관광, 소득화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의 고려 없이 그저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다.

앞선 전략1에서도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은 “범섬 주변지역을 해양생태계 관찰·교육·체험·관광이 가능한 해양공원으로 조성”이라고(「지역발전계획」, 33), ‘강정 용천수공원 조성 사업’은 “강정지역 20여개의 용천수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수·여가공간 제공”(「지역발전계획」, 31)이라고 그 목적이 풀이되어 있었다. 「지역발전계획」 전체에 걸쳐 관광, 체험, 관찰이라는 표현은 마을의 중요한, 따라서 보호해야 할 커먼즈로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용어로 기능하고 있다.

## 2) 논점 2. 현대화와 공동체

이제 ‘전략3. 풍요롭게 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이다. 여기에는 ‘농어촌·주거여건 개선 생활환경 정비 사업’,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사업’,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사업’,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 ‘민군 복합항 주변 어항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전략3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화’라는 표현이다. “주민 복지·의료 서비스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보건지소, 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 “주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지역발전계획」, 47)처럼 전략3에서는 ‘현대화’라는 표현이 산견되는데, 그것은 낙후, 정체의 상대어로 쓰이고 있다. 즉 현재 마을의 상태는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가치판단을 깔고 있는 표현이며, 그 결여를 극복하지는 수사,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결여를 창출하는 논리다. 현상태로는 복지와 레저 등의 측면에서 시설이 부족하니 새로 만들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으니 외부에서 사람과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적 문제의식인 마을상과 결부지어 기술한다면, 「지역발전계획」은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 실현될 강정마을의 미래상으로 “풍요로운 건강생태도시”를 상정하고 있다(「지역발전계획」, 19). 「지역발전계획」에서 ‘마을’은 말단의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지닐 뿐이며 가치가 실리는 말은 도시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이 상정하는 도시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편리한 주거·소비·레저의 공간이며,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대형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해양레저를 즐기며, 화폐로 매개된 관계가 삶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는 환경이다.

강정을 이처럼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마을에서 생활기반은 물론 기존의 의미망과 공동체적 관계를 뒤바꾸거나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더구나 「지역발전계획」이 시행되어 ‘도시적 삶’이라는 혜택을 누릴 대상은 강정마을의 주민이 아닌 관광객들, 그리고 서귀포시와 인근 혁신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강정마을의 주민에게도 도시적 삶의 혜택이 일부 돌아갈 것지만 마을공동체 해체, 인간관계 변질,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증가와 같이 도시적 삶이 요구하는 대가는 강정마을로 집중될 것이다.

이어지는 전략4는 화합과 공존의 민·군커뮤니티 조성이다. 해군 박물관,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홍보관, 민·군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사업내용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발생한 해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해군의 평화적 이미지 제고 필요”, “민·군공동이용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주민과 군의 공동체 의식 고취”가 기대효과로 설정되어 있다(「지역발전계획」, 57-60).

전략4에서 눈여겨 볼 표현은 ‘공동체’다. 전략4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수영장·종합운동장·종교시설·의무대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지역발전계획」, 56)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민·군공동이용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주민과 군의 공동체 의식 고취”를 꾀하고 있다(「지역발전계획」, 59). 여기서 공동체란 같은 시설의 이용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전략2에서도 결국 제주해군기지에 농산물을 납품한다는 의미인 ‘소비지 모델형 농수산물 유통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민·군복합항과 지역주민 간 교류 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기대효과로 상정하고 있다(「지역발전계획」, 44).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초래한 심각한 마을의 내분을 감안한다면, 해군 측과 친분이 있거나 기지건설 찬성측 주민 말고는 참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해군은 마을의 경제활성화를 명목

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군인들에게 마을 안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마을을 드나들 때는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요구했다.<sup>6)</sup> 마을 안에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유락시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기지촌이 되어가는 마을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 3) 논점 3. 친환경과 마을

전략5는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이다. 주요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친환경 생태테마공간 조성”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인데(「지역발전계획」, 61), 여기서 주력 사업은 후자다. 전략5는 마지막 전략으로 놓였으나 사업비는 가장 많은 3,574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전략5의 사업 취지는 “강정마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주택 및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이지만,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안풍력발전 사업은 사업비 850억원에 바닷가 3MW 3기, 해상 5MW 2기이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800억원에 기대 전력생산량이 30MW에 이른다. 거기에 민·군복합항 지열발전소 사업에도 1,580억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다. 애초 강정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라기보다 강정마을에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의 발전시설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전략5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친환경’이다. 「지역발전계획」은 “풍요로운 건강상태 도시”라는 전체 비전 아래로 세 가지 목표를 내놓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것이 ‘녹색의 도시’이며, 이어서 ‘풍요의 도시’, ‘건강한 도시’가

6) 김동원, 「평화를 거부하는 평화」, 『오늘의 문예비평』 103호, 2016, 63쪽.

제시된다. 여기서 ‘녹색의 도시’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으로 구체화 되는데, 이는 곧 전략5의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을 뜻한다.

한편 전략5는 마지막 항목으로 놓였으나 사업비 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국책사업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전략5의 ‘친환경’이 신재생에너지의 수식어 라면, 「지역발전계획」에서는 다른 의미 계열의 ‘친환경’도 발견된다. “마을 순환형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실개천 정비로 친환경 생태 ‘수변 공간’ 조성”(「지역발전계획」, 47), “(친환경 개발)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개발사업 시행”(「지역발전계획」, 72), “해양녹색테마공원”(「지역발전계획」, 25) 등. 여기서 친환경(親環境)은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거리상 환경에 가깝다(親)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마을의 해안이든 수변이든 범섬이든 관광객이 걷거나 자전거, 잠수정을 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짧게나마 마을상이라는 문제의식에 근거해 「지역발전계획」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과 같이 「지역발전계획」의 다섯 가지 전략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면 강정마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리는 ‘쇼핑 스트리트’와 ‘음식테마 거리’로 조성되고 ‘야시장’이 들어서고 ‘마을 순환형 자전거 도로’가 깔린다. 학교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화상교육 시스템(s-learning)’이 구축되고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프로그램 원격교육’이 가능해진다. 용천수 주위로는 ‘워터파크’와 ‘음악분수’가 지어진다. 강정항은 ‘조망 가능한 데크’와 ‘LED 조명’로 단장된다. 연안에는 ‘양식장’과 ‘바다목장’이 조성되고 ‘해상풍력발전기’가 올라가고, 범섬 쪽으로는 ‘범섬 수중공원’과 ‘해양수중생태관’이 자리 잡는다. 그것은 강정마을일 것인가. 강정, 그리고 마을일 것인가.

### 3. 『강정향토지』, 역사로서의 마을

강정마을에 관해 전혀 다른 시선에서 작성된 책이 있다. 『강정향토지』다.

강정마을회가 1996년에 펴낸 『강정향토지』는 5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이다. 총 8부 구성인데(7) 1부 설촌 유래, 2부 자연환경과 취락, 3부 지명 유래, 4부 마을 공동체, 5부 산업 경제, 6부 구비 전승, 7부 신앙 및 희생·유공자, 8부 교육·문화 순이다. 그리고 세대별 명부, 마을 자생 단체장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강정향토지』를 펼치면 설촌 유래로부터 시작한다. 향토지야 대체로 이런 기술 방식을 취하지만, 역시 「지역발전계획」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마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들었는지부터 풀어나가는 것이다. 반면 「지역발전계획」의 서두를 장식하는 내용은 서귀포시와 대천동의 지역 현황, 즉 인구추세, 지역 면적,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관광객 증가 추이처럼 수치로서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강정향토지』의 맨 앞에 실려 있는 지도도 「지역발전계획」과는 판이하다.

〈그림 1〉 『강정향토지』, 10쪽



〈그림 2〉 「지역발전계획」, 25쪽



7) 『강정향토지』는 부가 아닌 편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라고 기술하였다.

『강정향토지』가 1872년에 제작된 대정군지도라면, 「지역발전계획」은 (2011년으로부터) 십년 뒤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의 구상도다. 전자가 대가래천(강정천), 소가래천(악근천)을 비롯한 강정마을의 물길과 지세를 보여준다면, 후자는 강정 용천수 공원, 관광객 테마 쇼핑거리, 다이버 지원 센터,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이라는 관광시설을 표시하고 있다. 전자가 한라산을 비롯해 주위의 지형적 특성을 그려낸다면, 후자는 주위의 환경적 조건과 절연된 채 관광시설 집중지만을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시설이 있을 뿐 사람이 사는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지역발전계획」이 추진된다면 현재 강정 마을은 두 장의 그림 사이에 놓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 1) 자신의 마을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제부터 『강정향토지』를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강정향토지』가 담고 있는 「지역발전계획」과는 전혀 다른 마을상을 간취하기 위해 커먼즈란 인간 사회가 생계와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이용해온 다양한 자연자원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협력적 제도 내지 관습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앞서의 정의를 떠올려주기를 바란다.

1부부터 들여다보겠다. 1부 1절은 ‘마을의 어원’인데 “물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 “냇가에 위치한 데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강정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를 풀이하고 있다(『강정향토지』, 23). 1부 2절 ‘설촌과 역사’에 따르면 강정마을은 세종 21년(1439)에 동해방호소(가내관방)가 설치되어 56명의 마·보병 군인이 모여든 데서 촌락 형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강정향토지』, 43). 하지만 사람이 살기 시작한 내력은 훨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부 3절은 ‘유적과 유물’로 이어진다. 강정마을에서는 초기 철기시대 혹은 무문토기말기(대략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후한 시기)에 해당하는 골아가리

토기편을 수습했는데, 이는 강정마을의 오랜 설촌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정향토지』, 44).

1부 4절 ‘성씨별 입촌 내력’에서는 진주 강씨부터 창원 황씨까지 열 쪽에 걸쳐 86개의 성씨별 입촌 내력이 일일이 정리되어 있다. 이어서 1부 5절에서는 ‘성씨별 입향조’가 성씨, 본관, 시조, 입도조, 입향조, 전거주지, 현재 직손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1부 6절은 ‘사진으로 본 마을의 모습’인데 마을회관으로부터 시작해 26쪽에 걸친 사진들이 강정마을(거주지), 주거 유적과 문헌, 별포제 자료, 해안유적지, 교육·문화·종교, 민속놀이, 강정천·약근천이라는 큰 분류 안에서 배치되어 있다.

이로써 1부가 끝나고 2부 ‘자연환경과 취락’이 나온다. 먼저 자연환경으로는 비옥한 토질과 많은 물이 강조된다. 진, 담, 과수원을 합한 순수 농사용 토지는 서귀포시내 22개의 법정동 가운데 최대 면적이다. 여기에 “서귀포시가 직할시를 제외한 전국 46개 시 가운데 행정구역이 가장 넓다고 하니, 우리 강정동의 구역도 농경지만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큰 구역임을 알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적고 있다 (『강정향토지』, 102). 물 자량은 더하다. “가래현에서 강정으로 마을 이름이 표현된 것은, 물이 너무 많음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다 이해할 만큼, 참으로 귀한 천연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용출하고 있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제주의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이렇게 맑고 맛있는 용천수가 많이 나는 곳은 없다. 서귀포시민의 이용하는 급수원의 80% 이상을 용출하는 강정천이 있는 강정 마을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조상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강정향토지』, 103).

그리고 2부는 2절 ‘4·3 사건 이전 취락 지경’을 건너면 59쪽에 달하는 긴 분량이 할애된 3절 ‘사진으로 보는 생활사’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무엇을 마을의 소중한 생활 모습으로 간직하고자 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강정 포구,

초가집, 빨래터, 애기구덕세울 방애, 냇길이소 같은 마을의 오래된 정경, 가래 마을 어머니, 애기구덕과 여인, 마차를 물고기는 아주머니 같은 여성의 모습, 은어 걸리기, 자리 거리기, 논갈이, 모내기, 고구마 썰기, 돼지 거세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노동일, 쇠짜움, 운동회, 졸업식과 같은 연례 행사, 쥐 잡기, 송충이 잡기, 진드기 구제 작업, 예방접종 같은 위생사업, 합도병 입대, 강정 특수 공동 수용소 같은 역사기록 등이 사진에 담겨 있다.

이제 3부는 '지명 유래'다. 1절 '문헌에 기록된 지명', 2절 '마을 지명', 3절 '하천 지명', 4절 '해안가 지명', 5절 '용천수' 순이다. 5절 '용천수'는 큰강정물, 가시물, 할망물, 통물, 안강정물, 앞물, 함백이물, 버드낭샘, 체물, 동해물 등 용천수마다 붙은 이름과 그 내력으로 마무리된다.

4부는 '마을 공동체'다. 1절 '마을 자치', 2절 '마을 향약', 3절 '역대구·리·통장', 4절 '마을 공유 자산', 5절 '마을 자생 단체' 순이다. 그 중 강정마을회의 향약 제1장 제1조는 "본 향약은 강정마을의 자치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을주민의 뜻에 의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강정향토지』, 260). 마을자생단체는 노인회, 청년회, 4-H회, 부녀회, 민속보존회, 감귤 작목회, 화훼 작목반, 원예 작목반, 경자 갑장회, 마을 원로회, 어촌계 순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5부 '산업경제'는 1절 '농업', 2절 '수산업', 3절 '마을 발전사' 순이다. 1절 '농업'은 시기별로 나뉘지는데 '2. 1945년 이전 농업'을 보면 벼, 보리, 고구마, 조, 콩 등에 관한 작물별 재배방법과 지력유지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다. 2절 '수산업'을 보면 개인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어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강정동의 어장 면적 역시 서귀포시 전체의 어촌계에서 가장 크고 제주도 내 어촌계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고 밝히고 있다. 3절 '마을발전사'에서는 지역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로 1960년대를 꼽는다. 이때의 주요 개발사업으로 전기 가설, 상수도 시설, 도로 확장 사업, 버스 노선 개통, 마을

사무소 이설, 강정천 교량 개설이 열거되어 있다(『강정향토지』, 339~340).

6부 ‘구비 전승’은 1절 ‘설화’, 2절 ‘속담’, 3절 ‘민요’, 4절 ‘방언’, 5절 ‘세시 풍습’, 6절 ‘생활 민구’ 순이다. 그리고 제7부 ‘민신앙 및 희생·유공자’는 1절 ‘민간신앙’, 2절 ‘무속신앙’, 3절 ‘종교’ 순인데, 3절 종교에 속한 불교, 기독교 보다 무속신앙이 먼저 기술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4절 ‘4.3 사건과 마을 방위 축성’과 5절 ‘4.3 사건 희생자, 국가유공자’로 이어진다. 마지막 8부 ‘교육·문화’는 1절 ‘향사’, 2절 ‘배영의숙’, 3절 ‘초등학교’, 4절 ‘유아교육’, 5절 ‘초등학교 졸업자 명단’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 2)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사

『강정향토지』는 마을에 관한, 마을에 의한, 마을을 위한 기록이다. 「지역발전계획」과 비교하자면 「지역발전계획」에서 강정마을이 사업예정지인 일개 말단 행정구역이었다면, 『강정향토지』에서 강정마을은 대체할 수 없는 역사(시간)와 땅, 물(공간)을 가진 실체다. 「지역발전계획」이 연구용역을 통해 외부 시각에서 작성되었다면, 『강정향토지』는 주민들의 채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계획」이 전략적 용어로 채워졌다면, 『강정향토지』는 고유 명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이 현재의 결여 상태를 부각한다면, 『강정향토지』는 지금 모습에 대한 자긍심으로 충만하다. 마을향토지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덕진은 발간사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강정마을 향토지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 찬란한 새 역사의 출발을 위해 우리는 부족하나마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자랑스런 제일강정인들에 의해 하나하나 정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강정향토지』, 14).

하지만 이후 강정마을의 역사는 그 바람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강정향토지』는 1996년에 나왔다. 그로부터 십년이 지나 2007년부터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또 다시 십년이 지나 2016년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그 이십년간의 마을사를 쓴다면 절반은 해군기지 문제에 얽힌 시기이고, 이제부터 작성될 마을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강정마을은 『강정향토지』에 기록된 유구한 시간대로부터 급격히 벗어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크루즈항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크루즈항이 완공되면 강정마을은 기지촌이자 관광지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강정마을은 『강정향토지』가 기술된 시점과는 크게 달라졌다. 『강정향토지』는 강정을 물의 마을로 자랑했다. 하지만 큰 하천은 오염되고 있다. 강정천은 BOD가 크게 떨어졌고 퇴적물이 쌓여 썩어가고 있다. 강정천으로 올라오던 은어의 개체수가 급감했다. 바다 쪽도 오염이 심각하다. 해군기지 안에서 군함을 세척하고 페인트칠을 하느라 바닷물을 더럽히고, 해군기지 설계상의 오류로 대형 군함이 급변침해 서건도와 범섬 사이로 드나들어야 하는 것도 오염의 이유가 되고 있다.

마을의 공기도 바뀌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이래로 해안에는 무기를 탑재한 군함과 잠수함이 정박해 있다. 군용차량과 군인들이 마을 안길을 다닌다. 군용차량은 화약류나 폭발물을 싣기도 하며, 총을 든 군인들이 강정초등학교 앞에서 군사훈련을 한 적도 있다. 강정마을회는 ‘군복차림과 군용차량 마을 안길 출입 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sup>8)</sup>

이렇듯 군사기지가 땅으로 바다로 마을을 잠식하는데 『강정향토지』가 자랑하던 강정마을의 자치조직은 그 사이에 크게 형해화되었다. 200개 남짓한

8) 김동원, 2016, 「평화를 거부하는 평화」, 『오늘의 문예비평』 103호, 63쪽.

자생조직 가운데 태반이 해체되거나 회원 탈퇴, 불참 등으로 파행 운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지방의 농촌 마을도 겪는 과정이라고 하기에 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대체로 근 십년 사이에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측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강정향토지』는 당시 시점에서 마을의 지난날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강정마을은 『강정향토지』로부터 크게 달라졌다. 그리 하여 현재 『강정향토지』는 강정마을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떠내려왔는 지를 표시해주는 부표가 된다. 그대로인 것은 1부 설촌 유래와 3부 지명 유래 정도일 것이다. 나머진인 2부 자연환경, 4부 마을공동체, 5부 산업경제, 6부 구비전승 등을 모두 다시 써야 할 상황이 되었다. 물론 마을은 역사를 갖고 변해간다. 다만 그 변화가 얼마나 마을의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뤄지는 지가 마을사 기술에서는 관건일 것이다. 그렇다면 『강정향토지』 이후의 시점에서 과연 해군기지는 마을의 무엇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가. 「지역발전계획」에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의 인접지이자 관광미항의 배후지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시 작성될 강정마을사는 제주해군기지 그리고 관광미항과 관련해 어떻게 주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 4. 『강정이야기』, 반경으로서의 마을

그런데 강정마을의 오늘은 기록되고 있는 중이다. 『강정이야기』라는 마을 신문이 있다. 강정이야기 발행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한다.

신문인 『강정이야기』에서 접하게 되는 마을의 시간은 「지역발전계획」과도 『강정향토지』와도 다르다. 「지역발전계획」은 2012년이라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십년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강정향토

지』는 1996년이라는 발간 시점으로까지 이어진 지난 긴 시간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이야기』는 한 달을 단위로 현재의 시간을 새겨가고 있다. 거기서는 사건이 잇따르며 부단하게 움직이는 마을의 모습이 드러난다. 「지역발전계획」과도 『강정향토지』와도 다른 마을상이 있다.

### 1) 마을, 부단한 움직임

지금부터 2016년 일년 간의 『강정이야기』를 읽어보기로 하자.

1월호는 4면부터 6면까지를 「사진으로 보는 강정의 2015」로 뽑고 있다. 이를 통해 『강정이야기』가 지난 일 년을 어떻게 회고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진 제목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1일 0시 땀부리 별포제 / 2015년 1월 1일 중덕삼거리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 장승 세우기 / 1월 31일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 행정대집행 / 3월 7일 '너영나영 할망물 만나러 가자' 구럼비 밭과 4주기 퍼레이드 / 3월 28일 영등할망 바람질 걷기 퍼레이드 / 5월 16일 통물도서관 앞, 책마을 잔치 / 5월 12일~18일 오키나와 평화행진과 현민대회에 참여한 강정 / 5월 26일~29일 WCD대표단 강정 방문 / 5월 5일 멀구슬 논 쌀농사 / 7월 27일~8월 1일까지 강정생명평화 대행진 / 8월 23일~25일 밀양, 청도, 쌍차, 용산, 세월호 유가족의 제주 평화기행 강정 방문 / 8월 3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대책위 결성 3000일 되는 날 / 9월 3일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축복식 / 9월 16일 첫 군함 입항 / 10월 23일 2015 선 맥브라이드 평화상 공동수상 / 11월 8일 강정천 운동장, 평화체육대회 / 12월 공사장 정문 앞, 공소회장님 교통사고 24시간 항의 / 12월 3일~9일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강정방문 / 12월 8일 제주시청 상징탑, 강정 친구들 촛불문화제 / 12월 13일 알뜨르 비행장 난징대학살 추모식 / 12월 16일 마을회장 선출 임시총회, 조경철 회장 재임 결정

『강정이야기』가 회고하는 2015년은 사건과 행사가 연이어지는데, 곰곰이 살펴보면 세 층의 시간대로 이뤄져 있다. ‘별포제-영등할망축제-멸구슬 논 썰농사’처럼 제주의 농촌마을로서 지속되는 시간이 있다면, ‘농성천막 행정대 집행-강정생명평화대행진-반대투쟁대책위 결성 3000일’이라는 투쟁하는 마을로서의 시간이 있고, ‘WCD대표단 강정 방문-세월호 유가족 강정 방문-미국 평화재향군인회 강정방문’처럼 연대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기입되는 시간이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시간대가 마을 안에서 등가성을 갖지는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대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에게 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강정마을 안에는 그런 복층의 시간대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사실이다.

2월은 쉬어간 달이고 이후 3월부터 12월까지 거르지 않고 4면 내지 8면의 『강정이야기』가 이어진다. 자세히 들여다볼 겨를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각호가 집중한 내용을 한 대목씩만 취해보자.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의 개관 이후에 나온 3월호는 「다시 풀어 쓰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점」, 「친환경 돌제부두는 해양오염의 통로」, 「해군은 우리의 바다를 빼앗지 말라」 등의 기사와 칼럼을 통해 발 빠르게 해군기지가 야기할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4월호는 전체 지면의 절반을 구상권 문제에 할애했는데, 「마을과 상생하겠다던 해군, 34억 구상권 청구」, 「강정마을회, ‘천막 마을회관’으로 다시 거리에 나와」 등이 주요 관련기사다. 5월호는 「오키나와 515평화대행진」,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공사중단!」처럼 오키나와 연대의 내용이 중심이며, 「군, 강정마을 내 무리한 훈련 강행하며 마을회와 충돌 야기」라며 제주해군기지 가동 이후 변화하는 마을의 공기를 전하고 있다. 6월호는 「강정천 은어 개체수 급감」, 「정의논각 오수펌프장 오염문제 심각」 등에서 강정천을 비롯한 마을의 자연환경 오염문제를 조명했다. 7월호의 「해군기지를 향했던 세월호의 침몰, 의혹이 아니라 사실?」에서는 “지난 6.15 미디어 오늘은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

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에는 해군기지 건설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다”고 알리며 세월호 문제를 강정 문제와 결부지었다.

8월은 강정마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이다. 8월호는 1에서 6면까지를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특집으로 뺐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2008년과 2010년 강정주민들이 도민에게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주도를 일주했던 이후 2012년에 처음으로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해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다. 9월호의 「9월 5일 조정철 마을회장 체포, 담화문 발표」는 부제목을 ‘강정마을 계엄지역과 동일 취급, 마을공동체 파괴하는 해군 강하게 비판’으로 뽑고 있다. 서귀포 경찰은 4월 28일 마을 안에서 군사훈련 중인 해군차량을 막고 항의한 것에 대해 교통방해죄와 모욕죄 혐의로 딸기밭에서 일하고 있던 조정철 마을회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해군 폭발물 차량 안전수칙은 지키고 있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에서 폭발물 표지판을 단 군용트럭 두 대와 25톤 트레일러 차량 두 대가 마을 안길로 진입하려 하자 인간띠잇기 행사로 모인 사람들이 이를 막아선 일을 알리고 있다. 『강정이야기』에는 군사기지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선명히 기록된다.

10월호는 강정생명평화미사 5주년을 맞이해 두 쪽에 걸친 특집 기록이 실렸다. 그리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손실될 위기에 처한 청동기 유적」은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이뤄질 중덕삼거리 뒤편과 천막 마을회관 뒤편의 유적 발굴 작업을 다뤘다. 11월호는 다시 강정천과 강정바다 오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강정천과 강정바다가 죽어간다」에서는 제주도정과 강정마을회가 함께 진행한 강정앞바다 해양생태조사 중간발표회를 보고하며 기지 건설 이후 강정천과 약근천은 물론 강정앞바다에서 총체적인 환경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지표를 제시하며, 주요 원인으로 1850m에 이르는 기지 남서방파제를 꼽고 있다. 끝으로 12월호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와 「경찰, 적법성 결여—강정주민 항소

심 ‘무죄’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문정현 신부 사제 서품 50년 금경축」이 기사로 올라왔다. 강정생활이 6년째로 접어든 문정현 신부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나서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잔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강정마을에 측은지심이고 연민이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 남은 생은 강정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2) 마을, 자신의 눈높이

『강정이야기』의 2016년을 아주 짧게 살펴보았을 뿐이지만, 「지역발전계획」은 물론 『강정향토지』와도 마을을 대하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정향토지』가 마을의 역사를 서술했다면, 『강정이야기』는 마을의 오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강정이야기』를 통해서는 강정마을이 독특한 시간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강정마을은 확실히 독특한 시간의 공간이다. 한 해를 보더라도 별포제로 시작해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강정평화컨퍼런스를 거치는 시간이 있다. 하루를 보더라도 7시 생명평화백배, 11시 길거리미사, 12시 인간띠잇기로 이어진다. 별다른 행사가 없는 한 주도 여러 소모임으로 빼곡히 채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강정이야기』가 비추는 강정마을은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혹은 세상을 대하는 특정한 눈높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여느 도시생활에서 대중매체가 공급해주는 눈높이가 아닌 세상을 자신들의 집단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혹은 자신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눈높이를 갖는 것이다. 가령 『강정이야기』의 11월호와 12월호를 보면 당시 일반 신문에서 매일 같이 오르던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마을에서 생겨나 기록해야 할 일들이 많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강정이야기』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때, 그 마을은 일정한 구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강정이야기』를 보면 마을이라는 공간을 구획보다는 반경이라고 읽어내야 할 대목이 산견된다. 이는 「지역발전계획」은 물론 『강정향토지』와도 다른 지점이다. 「지역발전계획」에서 강정마을은 “법정동인 강정동 중 강정마을은 강정1통을 지칭”한다며, 말단 행정구역으로서 자리매김된다. 아울러 크루즈항의 배후지 내지 혁신도시의 인접지처럼 다른 시설이나 도시에 근거해 정의된다. 한편 『강정향토지』에서 강정마을은 20여개의 용천수가 있는 땅이고, 역사 문헌을 통해 그 외연이 보충된다.

하지만 『강정이야기』에서 강정마을은 외부의 사람, 사건, 문제와 얽혀드는 장이다. 들숨과 날숨을 하듯 마을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로써 생겨난 일들이 다시 마을의 기억과 기록이 된다. 강정은 이미 이곳에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의 마을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강정마을이라는 반경 안에서의 만남은 한국이라는 지역 범위로 국한되지도 않는다. 강정마을은 이미 오키나와, 대만, 미국 등지의 여러 지역운동, 사회운동과 연계되어 있다.<sup>9)</sup> 비록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강정이야기』를 읽으면 국내 어느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나가와 코지라는 이름과 만나게 된다. 강정마을에 다녀갔던 그는 ‘요나구니 섬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이소바의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행방불명된 이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강정마을의 평화센터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빈소가 마련되었다. 어느 신문에는 오르지 못하는 사건들이 ‘강정이야기’라는 프리즘을 거쳐 발신되고 있다.

9) 가령 평화의바다를위함섬들의연대는 제주와 오키나와, 대만을 잇는 동아시아의 바다를 전쟁이 없는 비무장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자 뜻을 모아 만들어졌다. 2014년, 제주도 강정의 평화의 섬 국제캠프를 시작으로 2015년 오키나와, 2016년 대만으로 국제캠프를 이어가고 있다.

## 5. 마을 이후의 마을

### 1) 마을의 위기와 커먼즈론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속도로 산업화를 진전시켰지만 권위주의적 압축성장과 급속한 시장화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을 해집어 놓았다. 성장과 개발이 압축적이었던 만큼 파괴와 위기도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공권력과 시장권력의 양축으로 짜인 현재 사회체계가 초래하는 마을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서 커먼즈론의 문제의식은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근대화 이래 자연자원은 주로 정부(공公)와 시장(사私)의 결정과 개입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이항적 구도에 맞서 '제3의 길'로서 지역 주민의 자치(공共)에 기반한 자원관리의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커먼즈론이다. 시장의 지배(사유)도, 국가의 지배(국유)도 아닌 커먼즈의 운영원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강정향토지』는 마을의 커먼즈에 관한 소중한 기록으로 읽을 수 있다. 그 안에는 이곳의 자연자원은 어떠한 것인지, 그 자연자원 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들었는지, 모여든 사람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일궈왔는지, 그 공동체는 어떤 전통, 관습, 서사, 기억을 만들어냈는지, 그러한 커먼즈의 형성사를 담고 있다. 『강정향토지』는 마을이 이처럼 다양한 자연적·인위적 요소들로 짜이며 거기에 시간의 주름이 새겨진 역사적·입체적 장이라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강정마을의 커먼즈는 지난 십 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 위에서 「지역발전계획」은 또 다른 마을상을 내놓는다. 앞서의 <그림2>를 상기해보자. 「지역발전계획」에서 마을은 삶의 흔적들이 소거된 매끄러운 공간이며 마을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는 교환가치로 환원되고 있다. 커먼즈론의

각도에서 평가하건대 마을의 발전을 내건 「지역발전계획」은 반커먼즈적이며 반마을적이다. 「지역발전계획」의 발상과 논리와 문법에서는 마을과 주민이 빠져 있다. 전체를 총괄하는 추진 전략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의 우수한 자원과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라며(「지역발전계획」, 20), 전략, 자원, 입지여건, 잠재력 최대화가 마을과 주민의 삶을 대하는 주요 용어로 설정되어 있다. 더구나 「지역발전계획」에서 관광허브, 관광자원화, 현대화, 공동체, 친환경, 생태마을 등 핵심 용어는 모두 마을 바깥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리하여 「지역발전계획」과 『강정향토지』를 통해 들여다보는 강정마을의 역사와 경험은 마을이라는 화두와 관련해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마을 주민 대다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을 사업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마을의 커먼즈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

## 2) 강정, 커먼즈의 마을

그런데 강정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특이성(singularity)에는 마을을 사고할 때 강정마을이 발신하는 보편적 함의가 담겨 있다. 파괴의 위협에 처하고 실제로 파괴당하면서 구럼비 바위는 바깥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강정으로 찾아온, 다른 사회적 배경과 삶의 내력의 사람들은 마을에서 ‘지킴이’라는 공동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강정이야기』 2016년 1월호는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한다.

아득히 먼 나라에서 강정마을을 찾아든 여러 나라의 친구들, 제주가 좋아 이주한 왕년의 장구쟁이 출신 카페지기와 한때는 방송사 감독님이었던 고깃집 사장님,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는 숲해설가, 어렵사리 언문 하나 겨우 깨우친 주제가 작가라고 갖은 품을 잡는 제주도박이, 카메라와 장구체를 동시에 들고 내달리는 영상작가, 그리고 강정과 제주,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우리의 지킴이들

이들은 한 사람으로 왔지만 저마다 다른 사연과 성격과 바람과 능력을 갖고서 왔다.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반대운동도 가라앉으며 마을회관과 의례회관, 평화센터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도 했지만, 현재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겨 살아가는 서른 여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제 지킴이라기보다 신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시기 대추리 마을로 들어간 일련의 활동가들이 ‘지킴이’라고 불린 이래, 지킴이들은 이곳저곳의 현장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며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전에 없던 저항의 형태를 창출해냈다. ‘제3자’, ‘외부세력’이라는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새로운 당사자’가 되어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생활의 장을 운동의 무대로 삼았던 것이다. 사는 식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생활하다가 운동의 끝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그런데 강정마을은 그 대목에서도 조금 달랐다. 일부 지킴이들이 지켜내지 못해 패배한 운동 이후에도 ‘신주민’이 되어 마을에 눌러 산 것이다.

그리하여 400년 된 강정마을에는 전에 없던 낯선 세대가 생겼다. 그리고 마을에는 그들의 활동이 생겼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 국제팀, 평화의 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마가지협동조합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은 패배하고 구럼비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마을에는 전에 없던 공간들이 생겨났다. 평화회관, 평화센터, 평화책방, 길거리미사천막 등. 그 활동은 비록

기존의 커먼즈를 상실했으나 새로운 커먼즈를 일궈내려 한다는 점에서 커머닝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커머닝은 “공유된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들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상호지원, 갈등, 협상, 소통 그리고 실험의 행동들”<sup>10)</sup>로서 공(公)과 사(私)의 논리를 넘어 공동의 것을 생산하려는 공유화 실천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킴이’로 마을에 들어왔으나 구럼비를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은 마을에 남아 마을의 ‘사회-생태계 지킴social-ecological stewardship’<sup>11)</sup> 활동을 해내고 있다. 「강정이야기」를 떠올려보자.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빼곡하게 그들이 마을에서 벌인 활동들은 “생태계 지킴이 역할의 목표는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복지 및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을 높여 전체 사회-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sup>12)</sup>라는 내용에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강정마을은 400년 간 간직해온 커먼즈를 잃었으나 현재 새롭게 세포분열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문장은 구럼비가 어떻게 마을의 커먼즈였으며, 그들의 활동이 커머닝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이후 마을, 운동 이후 운동의 가능성도 시사해줄 것이다.

여기서 구럼비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이름, 되찾아 회복해야 할 모든 일들의 이름이다. 아름다운 것이면 어디든 구럼비라고 부르고 선량한 의지마다 그렇게 또 부른다.

---

10) David Bollier,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 2016, p. 1. <http://thenextsystem.org/commoning-as-a-transformative-social-paradigm/> (검색일: 2017. 3. 25) 참고로 이 글의 한글번역본은 <http://minamjah.tistory.com/122>에 게재되어 있다.

11) G. P. Kofinas and C. Folke(eds.), *Principles of ecosystem stewardship: Resilience-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Springer, 2009.

12) 최현 파이상성, 2016, 「공동자원론의 쟁점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진인진, 50쪽; Armitage, Derek, 2005, “Adaptive Capacity and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35(6).

마을 큰 사거리에 평화센터가 있고 그 뒤에 들꽃을 사랑하는 친구의 작은 공방이 있다. 그 길 따라 포구 쪽으로 몇 걸음이면 강정에서 오랜 시간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평화바람과 제주교구가 함께 만든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있다. 먼저 사거리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평화책방이 있다. 돌아올 4월엔 그 길에서 한라산 보이는 방향으로 마을 동네 미술관도 준비 중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공간들의 용도엔 구럼비가 담겨 있다. 함께 밥을 먹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상념에 빠지기도 했다. 읽던 책이 손에서 떨어져야 잠이 든 것을 알았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릴 식히기에도 좋았다. 누굴 만나기에도 이만한 곳이 없었다. 구럼비는 모든 것의 모든 용도를 지닌 곳이었다. 지금 강정에 있는 여러 공간들의 모티브는 구럼비의 어떤 일부다. 여기 강정마을에선 구럼비가 모든 것의 이름이 되었다.<sup>13)</sup>

### 3) 강정, 미래를 선취하는 이름

고병권은 ‘주변화marginalization’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대중에 대한 추방현상을 사고한 적이 있다. 그는 마진margin이라는 말이 갖는 다양한 함의에 착목한다. 마진은 한국어로는 주변, 한계, 이익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마진이라는 말을 이렇게 읽어 들인다. 마진의 첫 번째 의미인 ‘주변’은 권력과 부의 영역에서 부차화된 대중의 지위를 나타낸다. 마진의 두 번째 의미인 ‘한계’는 대중의 삶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 마진의 세 번째 의미인 ‘이익’은 국가권력과 자본이 대중을 주변화시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sup>14)</sup>

그의 발상은 강정마을의 현상황을 해석하기에 유용하다. 아울러 강정마을의 현상황을 해석하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보편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도 유용하다. 강정마을은 한국의 주변인 제주도에서도 남쪽 끝에

13) 엄분희, 2017,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말과말』 13호, 362~363쪽.

14) 고병권, 2009, 『추방과 탈주』, 그린비, 24~27쪽.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주변이라서 군사기지가 들어선 마을이다. 다시 말해 주변화된 마을이다. 강정마을이라는 주변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자 국가의 폭력과 자본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계지대다. 그곳에서는 불안정과 위기가 삶의 기본 조건이 된다.

하지만 그렇기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거기에 대응해 생겨나는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정마을은 상이한 논리와 가치들이 충돌하는 현장이다. 발전주의와 생태주의, 국가와 지역, 착취와 보존, 경쟁과 협동, 획일과 다양이라는 가치가 그곳에서 맞붙는다. 그 와중에 전자의 가치들은 'A를 위해 B를 희생한다'는 논리를 취한다. 강정마을만이 아니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마을공동체를 희생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갯벌을 희생하고,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 그렇게 국익이라는 가치는 비교대상이 아닌 A와 B를 비교가능하게 만들고 국익론은 A가 더 크다고 번번이 손을 들어줬다. 그것은 때로 개발주의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가 앞바다가 공동체가 과거유적이 그 희생의 목록에 올랐다. 마을의 땅은 소비·교환가능한 부동산으로서 그 가치가 평면화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익론과 개발주의는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사회의 여러 마을을, 때로는 내부의 적대를 부추기면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강정의 이야기는 그곳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사적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국책사업과도 맞닥뜨려야 했던 강정마을은 마을에서 소유와 관리라는 문제를 사고할 때 중대한 논점을 제공한다. 현재 마을 안으로 군사기지와 관광시설이 들어오며 소유주체로서의 공공(마을/집단), 공공(국가/도정), 사私(개인/자본)와 관리주체로서의 공공, 관官, 개個가 뒤얽혀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물었던 물음은 여기서 구체화된다. 마을 주민 대다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을 사업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마을의 자연자원은 누가 무엇을 근

거로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 강정마을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 물음들을 구체화했고, 커먼즈와 커머닝은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주 민군복합항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 민군복합항을 미국의 하와이나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세계적인 민군복합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만 건설에 협조해 주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sup>15)</sup>

같은 날, 강정마을은 ‘강정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가졌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속마을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지키고 새롭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정마을이 강정생명평화문화마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 평화, 문화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저 추상명사들-친환경, 안보, 현대화와 맞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커먼즈의 상실 이후 사회적 커머닝이라는 동사가 필요할 것이다. 강정마을은 공공의 재구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실제로 진행 중이다. 평화센터, 평화회관, 평화책방, 길거리미사천막과 같은 공간들, 안녕기원제,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강정평화컨퍼런스, 멧부리의 날과 같은 시간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 강정이야기, 마가지협동조합과 같은 활동들은 모두 몇 년 사이에 생겨난 커머닝의 고유명사들이다. 그것들은 현재 미약하더라도 다른 미래를 품는다는 의미에서 징후적이다.

강정마을의 운동은 비록 패배했지만 좌절한 것은 아니다. 반대운동 이후 대안적인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운동이 재개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존재

15) 「황교안, 제주 해군기지 준공식 참석」, 『서울신문』 2016. 2. 26.

는 이 두 번째 운동의 성패를 가르지 못 한다. 마을에서 이 운동이 앞으로 무엇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마을은 주어의 자리를 되찾는다. 그리고 운동 이후의 운동은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전에 없던 마을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하여 강정은 지금 존재하는 한 마을의 이름이자 미래를 선취하는 마을의 이름일 수 있는 것이다.

K C I

## 참고문헌

- 강정마을회. 1996. 『강정향토지』.
- \_\_\_\_\_. 2012. 『눈물 속에서 자라난 평화』. 단비.
- 강정은. 2012. “고립에서 연대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확장하자!” 『정세와노동』 79.
- 강정이야기 발행위원회. 2016. 『강정이야기』.
- 고권일. 2011. “대한민국만의 제주해군기지가 가능한가?” 『정세와노동』 70.
- 고병권. 2009. 『추방과 탈주』. 그린비.
- 고정숙. 2013. 『그리운 강정 바다』. 순수문학.
- 구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 2011. 『울지마 구림비 힘내요 강정』. 나뭇복스.
- 기획재정부 외. 2012.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 김경훈. 2011. 『돌맹이 하나 꽃 한송이도』. 도서출판 각.
- 김국상·이정원. 2011. “제주 미 해군기지 건설은 제2의 4·3 부를 시한폭탄.” 『민족21』 123.
-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울림.
- 김남규. 2012. “구림비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탈법·불법의 문’ 열어제긴 강정해군기지 사업.” 『민족21』 138.
- 김동원. 2016. “평화를 거부하는 평화.” 『오늘의 문예비평』 103호.
- 김선우·전석순·이은선(글). 나미나(그림). 2012. 『구림비를 사랑한 별이의 노래』. 단비.
- 김성규. 2014. 『구림비 그 바다에 부치는 글』. 에이프릴미디어.
- 김세은·이승선. 2012. “사회 갈등과 미디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방송 뉴스의 취재원 특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26(5).
- 김아현. 2011.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세계』 20.
- 김중미(글). 도르리(그림). 2013. 『너영 나영 구림비에서 놀자』. 보리.
- 테이비드 불리어.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 박정은. 2012. “국가 안보냐 한반도 평화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핵안보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21.
- 배윤기. 2012.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43.

- 백창욱. 2012. “강정과 구름비를 그대로 뒤라.” 『레프트대구』 5.
- 양길현. 2011.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동학: 자원동원이론 시각.” 『민주주의와 인권』 11(1).
- 엄문희. 2017.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말과활』 13.
- 엘리노어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 오영덕. 2012. “구름비 생태계, 우리를 살려 줘서: 제주 강정마을의 환경생물학적 가치.” 『우리교육』 248.
- 윤용택. 2011a. “강정마을에 드리운 무기의 그늘: 제주 해군기지 팽풍의 현장.” 『황해문화』 72.
- \_\_\_\_\_. 2011b. 『생명 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며』. 도서출판 각.
- \_\_\_\_\_. 2012. “제주해군기지 틈으로 본 우리시대의 생명평화.” 『진보평론』 52.
- 이경원. 2011.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경제와사회』 89.
- 이반 일리치. 2013.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권루시안 옮김. 느린걸음.
- 이상원. 2012. “중덕이가 백구를 물었다: 개싸움이 보여주는 강정마을, 제2의 평택 되려나.” 『레프트 대구』 5호.
- 이주빈(글). 노순택(사진). 2011. 『구름비의 노래를 들어라—제주 강정마을을 지키는 평화유배자들』. 오마이북.
- 임정빈. 2012.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4).
- 정육식. 2012.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서해문집.
- 정영신. 2012.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 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46.
- \_\_\_\_\_. 2014. “제주 역사의 근대 정치동학: 4·3에서 강정까지.” 『문화과학』 81.
- \_\_\_\_\_.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진인진.
- 정육식. 2011. “제주 해군기지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한국의 미래.” 『작가세계』 23(3).
- 조영배. 2011.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 631.
- 최현. 2016.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진인진.
- 최현·파이싱성. 2016. “공동자원론의 쟁점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진인진.

홍기룡. 2011. “제주해군기지와 섬 연대.” 『정세와노동』 71.

Armitage, Derek, 2005, “Adaptive Capacity and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35(6).

G. P. Kofinas and C. Folke(eds.), 2009, *Principles of ecosystem stewardship: Resilience-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Springer.

(2017년 4월 26일 접수, 2017년 6월 9일 심사완료, 2017년 6월 12일 게재확정)

윤여일 [ekswnrjfl@hanmail.net](mailto:ekswnrjfl@hanmail.net)

제주대학교 SSK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방문학자로 베이징에서, 도쿄외국어대학 외국인연구자로 도쿄에서, 도시사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교토에서 체류했다. 『동아시아 담론』, 『사상의 원점』, 『사상의 번역』, 『지식의 윤리성에 관한 다섯 편의 에세이』, 『상황적 사고』, 『여행의 사고』(하나·둘·셋)를 쓰고, 대담집 『사상을 잇다』를 펴냈으며,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1·2),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일본이데올로기』, 『사상이 살아가는 법』, 『조선과 일본에 살다』, 『사상으로서의 3·11』,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을 옮겼다.